KPM테크, PCB 호황업고 수익급증

2004년 상반기 영업이익 221.6% 증가 … PCB 도금장비 수주 이끌어

PCB 도금약품 및 도금장비 제조기업인 케이피엠테크(대표 채창근)가 국내 PCB기판 라인 증설로 PCB 도금장비 사업이 호황을 보여 2004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21.6% 증가하는 등 수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피엠테크의 2004년 상반기 매출액은 172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8억4300만원으로 221.6% 늘었다. 2003년 전체 영업이익 16억4000만원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이다. 경상이익은 16억1800만원으로 2003년 하반기 6억3400만원의 2.5배에 달했다.

케이피엠테크 경영실적(1-6월)

(단위: 100만원, %)

구 분	2004	2003	증감률
매출액	17,230	13,581	26.9
영업이익	1,843	573	221.6
경상이익	1,618	554	192.1
당기순이익	1,101	420	162.1

케이피엠테크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PCB 도금약품과 도금장비 사업이 2대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 상반기에 도금장비 매출이 40%가량 증가해 수익성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04년 상반기에 PCB 도금장치가 대덕전자(6대), 대덕필리핀(1대), 삼성전기(1대), LG전자(3대)를 수주·납품했고, 오알켐에 전자동 Penel 도금장치(1대)를 수주받아 2004년 9월까지 납품할 예정으로 있어 수주총액이 43억65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PCB 도금장비는 핸드폰 교체 사이클과 비슷하게 맞물려 설비가 노후화되지 않더라도 모델이 바뀌면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PCB 도금장비 및 약품 부문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피엠테크는 20년간 일본 상촌공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PCB 표면처리 장비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켜왔으며, 당분간은 PCB 도금사업에 주력하면서 LCD·PDP 도금사업 쪽으로 진출할 계획 아래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34/08/19>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